



믿음의 가정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같** **이**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3:1~4 **가족이 함께**

-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말 씬 사랑이 넘치는 한가위 인도자

한가위. 참 따스한 명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한 명절입니다. 특히 마음이 따뜻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보다는 물질이 우선하는 형식적 인사치레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휴가를 떠나는 풍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믿는 제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기쁨과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깊은 교훈을 찾아 마음에 담아 봅시다.

사랑이 없는 말은 ‘소음’입니다.

명절은 서로 만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서로 묻고 답변하며 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수는 적을지라도 그 안에 진심과 따스함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같이 지내 온 세월 속에 어두운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밝은 내용을 이야기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는 따스한 말을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무가치’합니다.

명절에 믿는 자들이 모이면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전도했는지, 또 충성했는지.. 등등등..”

그러나 그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이 자기 자랑이 되어 버린다면 그런 능력있는 신앙생활도 사실 상대방에게는 마음을 닫게 하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간증은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자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높이며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과장없이 고백할 때, 그리고 듣는 자가 공감할 수 있게 사랑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가치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모이면 서로 유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랑있는 간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잠깐이지만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명절이 되어 특정한 장소에 모이면 같이 있게 됨으로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의도 필요하구요.

그러다보면 자기를 다스려야할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 때 믿는 우리는 참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는 것이 사랑이 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적당히 참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래 참는 것만이 숭고한 사랑이 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는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한가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모이는 한가위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모두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빕니다. 할렐루야!

찬 송 찬송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가친척을 위해, 남북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기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G D/F# Em Am7 D7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아주많이 - 요 -

G D/F# Em Am D7 G C/D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그것뿐에 - 요 -

G D/F# Em C Am7 D7
 사 - 랑한 다 아 들 아 내 - 가 너 를 잘 아 노 라 -
 내 딸 아

G D/F# Em Am7 D7 G
 사 - 랑한 다 아 들 아 네 - 계 축 복 더 하 노 라
 내 딸 아

찬송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